

남가주 봉축 치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나투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곳 봉축 법석에 참석하신 미국 남가주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로 국민 모두가 슬픔에 젖어있습니다. 부디 호국영령들이 극락왕생하고 상복상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소통과 화합’을 주요 화두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봉축 슬로건 역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소통은 막힌 것을 뚫는 일이며 오해를 푸는 일입니다. 소외된 사람에게는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나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라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 비로소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될 때 화합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인류에게 대부분의 불행은 사라질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나’라고 하는 집착을 놓아버리지 않고는 진리의 문에 들어설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나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전 세계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는 에너지 절약, 음식 쓰레기 안 남기기, 환경보호, 이웃에 대한 친절과 자원봉사 등의 실천활동을 통해 물질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커다란 기쁨을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종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해외사찰 지원과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국제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찰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 각자의 원력과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한마음 내려놓으면 세계가 다 내 것이 됩니다. 큰 마음으로 협조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가주 불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신행과 불퇴전의 신심을 다시 한번 치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불기2554(2010)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